

명상서적·아포리즘·대중시

70년대 후반에 소개된 크리슈나무르티로부터 일기 시작해 라즈니쉬, 바하리다스 등으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명상서적 열풍에 대한 비판이 '드디어' 불교계에서 제기됐다. 월간 「현대불교」의 9월호 기획특집 「불교를 혼동시키는 명상서적」이 바로 그것으로, 여기서 필자들은 "불교와 불교 아닌 것을 밝히고, 이유없이 얽히고 착각된 부분들을 교정한다"는 측면에서 일련의 명상서적이 내포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는데, 그것들은 물론 충분히 설득력 있다.

「현대불교」지의 이같은 문제점 지적은 불교라는 종교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출판 및 독서문화의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명상서적은 지식이나 지혜를 불어

넣는 책이라 하여 일각의 옹호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심오한 동양정신을 대중취향에 맞게 인스턴트화한 것이라는 혐의가 더 길기 때문이다.

명상서적의 문제는, 명상서적과 함께 요즈음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꾸준히 랭크돼 있는 이른바 '아포리즘도서'와 '대중시집'과 연계해서 살피면 더욱더 명확해진다.

가령 아포리즘도서의 경우, 간결한 말속에 깊은 체험적 진리를 교묘하게 압축한다는 아포리즘의 본디뜻에 충실한 것보다는 "시인이 되지만 시인의 시가 되지만 시 같은" 현란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대중시집 또한 설익은 감상적 사랑타령으로 일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서, 명상서적·아포리즘·대중시의 베스트셀러화 현상이 갖는 문제는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만한 것이 못된다.

특히, 그것들의 주 독자층이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명상과 아포리즘과 대중시는 논리가 갖는 어떤 수학적 각박함을 벗어나며 피곤한 삶의 청량제 구실을 하지만, 한번도 치열한 논리를 경험치 못한 세대들에게는 사고의 단편화와 책읽기의 즉흥성만을 조장할 우려가 더 크다.

일관된 논리로 길게 전개되는 산문에 대한 혼란 없이 곧바로 명상과 아포리즘과 시의 '초논리'로 이행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따로 부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진지한 독서를 방해하는, 우리시대 정신사의 한 경박성의 징후를 알리는 붉은 신호등이다.

—강철주 부장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10월 3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73호(11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在外韓人 작가들의 작품집을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한반도가 아닌 다른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은 어떤 것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희노애락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조국은 어떤 모습들이가

등에 대한 좋은 답변을 제공하시는 이 일련의 재외한인작가 작품집은, 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구미 지역 한인작가들의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특히 중국 및 일본 거주 한인들의 작품집이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념과 언어를 초월해 민족의 동질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 이들 재외한인작가 작품집에 대한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골라주시시오

문제1

80년대 중반 이전에 소개된 다음의 재외한인 작가 작품집들 중 세권은在美작가의 것인데 반해 다른 한권은 在獨작가의 작품집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①김은국의 「순교자」
②김용익의 「꽃신」
③강용홀의 「초당」
④이미륜의 「압록강은 흐른다」

문제2

8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중국 연변동포들의 문학은 동북변방에서의 한민족의 수난사를 생동감있게 그려냄으로써 국내 독자들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

다. 다음에 든 연변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식민지조선에서 태어난 한 소년 '서선장'이 어떻게 민족의식에 눈뜨고 좌익항일투쟁에 투신하게 되었는가를 그린 「혁명성장소설」은 어느 것입니까?

①김학철의 「격정시대」
②리태수의 「춘삼월」
③김파의 「흰뚝」
④류원무의 「일어서는 풀」

문제3

다음에 든 작품 중 대표적인 在蘇 한인작가 중 한 사람인 아니폴리 김의 작품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푸른섬」
②「연꽃」
③「홍범도」
④「사할린의 방랑자들」

제69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대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9호(9월20일자) 퀴즈에 응대해온 엽서는 모두 36통, 이중 정답자는 1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

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 ① 「대한제국멸망사」-③ 험버트 저
- ② 「대한제국의 비극」-④ 맥켄지 저
- ③ 「은자의 나라, 한국」-⑤ 그리피스 저
- ④ 「조선건문기」-①알런 저
- ⑤ 「한국독립운동의 진상」-④켄달 저

당첨자

- 남승호(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1300-9)
- 김성년(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성여자상업고교)
- 장은정(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9 리라빌라 203호)
- 강영애(부산시 진구 가야2동 600-2 14동 5반)
- 조양순(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852-2 18동3반)

출판저널

통권 제 71호/1990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李權雨 鄭素淵 崔允源 鄭蕙玉 林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全惠敬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공고
인쇄처 — 평화단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인사전식사자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사령의원

-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炳翼
 -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 宋相庸 申福龍 愼鍾廈 安秉永
 -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 尹志寬 李康淑 李瑋薰 李光周
 - 李基相 李斗曠 李萬烈 李炳助
 - 李相日 李勝羽 李元靛 李重漢
 - 李姬載 林煒燮 張必和 張會翼
 - 鄭丙圭 鄭秉鍾 鄭雲峽 鄭晉錫
 - 鄭鎮弘 曹大鉉 崔錫庫 韓相震
 - 韓勝憲 許碩烈 洪延善 黃鉉產
- (가나다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